

< 본 보도자료는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apup.org>)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24-2025 대학교육 통계 자료집」 발간

- 국내 외국인 유학생 4년간 56.8% 증가...10명 중 9명은 사립대 재학
- 비수도권 사립대 외국인 유학생 1년 만에 24.4% 증가
- 사립대와 국공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 4년간 2.4배 확대, 사립대 열악
- 소멸위험지역에 대학 61개교(23.3%) 소재, 사립대학이 45개교
- QS 세계 800위권 한국 대학 20개교... 사립대 16개교, 국공립대 4개교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전민현, 이하 ‘사총협’)는 「2024-2025 대학교육 통계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사총협은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육 관련 통계를 종합·분석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통계집은 전국 4년제 대학 195개교(사립대학 151교, 분교 5개교, 국공립대학 39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로 대학교육 관련 통계 및 언론 기사와 각종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자료집은 I. 학생, II.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 III. 유학생, IV. 교원 및 직원, V. 재정 및 시설, VI. 취업 및 창업, VII. 인구 동태, VIII. 사회지표, IX. 국제지표 등 총 9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별·설립별로 심도있게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 2024-2025 대학교육 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25년 대학 재학생 수는 2025년 1,402,438명...사립대 재학생은 1,079,995명(77.0%), 국·공립대 재학생은 322,443명(23.0%)

- 4년제 대학은 195개교이며, 이중 국·공립대학은 39개교(20%), 사립대학은 156개교(80%)다. * 국공립대학에 통합 전 강릉원주대 포함. 사립대학에 5개 분교는 별도 산정함
- 4년제 대학 재학생 수는 2025년 1,402,438명으로 2021년 대비 31,254명(2.2%) 감소하여,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설립별로는 2025년 사립대 재학생은 1,079,995명(77.0%), 국·공립대는 322,443명(23.0%)이며, 2021년 대비 2025년 사립대는 25,667명(2.3%) 감소, 국공립대는 5,587명(1.7%) 감소함.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2,791명 증가, 비수도권은 44,045명 감소하였다.
- 사립대 수도권에서는 2.3%(11,996명) 증가한 반면에, 비수도권은 6.4%(37,663명) 감소하고, 국립대 수도권도 1.4%(795명) 증가한 반면에, 비수도권은 2.4%(6,382명) 감소하였다.

② 국내 외국인 유학생 4년간 56.8% 증가...10명 중 9명은 사립대 재학

- 국내 4년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1년 9만 7,477명에서 2025년 15만 2,838명으로 4년간 5만 5,361명(56.8%) 증가하였다. 2024년과 비교해도 2만 4,731명, 19.3% 증가하였다.
- 2025년 외국인 학생 중 사립대학 재학생은 13만 7,080명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으며, 국공립대학 재학생은 1만 5,758명으로 10.3%이다.
- 특히,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2024년 4만 5,725명에서 2025년 5만 6,884명으로 1년 만에 24.4% 증가하였다.
- 출신 지역별 현황을 보면, 아시아가 91.2%(191,51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유럽 5.1%, 북미 1.8%, 아프리카 1.2%, 남미 0.5%, 오세아니아 0.2% 순으로 아시아 출신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신 국가별 현황을 보면, 중국이 35.5%(74,62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베트남 24.6%(51,764명), 몽골 6.0%(12,511명), 우즈베키스탄 5.4%(11,359명), 일본 2.3%(4,906명), 미국 1.4%(2,897명) 순이며, 2022년 대비 전체적으로 43.6% 증가하였다.
- 2022년 대비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가별로 증가 추이를 보면, 몽골이 102.1%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베트남 82.4%, 우즈베키스탄 6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6.2% 감소하였다.
- 이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많은 부분을 현재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대학의 새로운 교육 수요이자 지역 인구와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주요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 2025년 사립대학 총 재정규모는 59조 6,570억원…교비회계는 20조 6,956억원

- 2025년 총 재정규모는 59조 6,5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함. 이중 학교회계가 74.8%인 44조 6,395억 원이나 부속병원회계가 4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비회계는 34.7%이다. 산학협력단회계는 14.9%인 8조 8,599억 원, 법인회계는 10.3%인 6조 1,576억 원이다.
- 사립대학의 총 재정규모 추이를 보면, 총 재정규모는 2021년 48조 9,358억 원에서 2025년 59조 6,570억 원으로 21.9% 증가하였으나, 학교회계의 비율은 감소하고, 산학협력단회계 비율은 증가한 이유이다.
-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는 학생 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등록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총 재정규모 구성비 2021년 37.0%→2025년 34.7%)하였다.

④ 2025년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 총액 9조 9,551억원… 등록금 의존율 48.1%

- 2025년 사립대학의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 결산 수입은 총 20조 6,955억 원이며, 이중 등록금 수입이 9조 9,551억 원(48.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이 4조 2,220억 원(20.4%), 전입금 1조 5,580억 원(7.5%), 교육 부대수입 1조 2,060억 원(5.8%) 순으로 나타났다
- 교비회계 추이를 보면, 등록금 수입 비율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대비 2025년에 6.9%p 감소한 반면에, 국고보조금 수입 비율은 3.1%p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25년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48.1%으로 전년 대비 2.1%p 감소하였다.
- 학생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해 등록금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국고보조금 증가로 자금수입총액은 증가하고 있다.
- 2025년 대학 평균 등록금은 6,954천 원이며, 설립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692천 원,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은 4,004천 원으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52.1%이다.
- 계열별 등록금은 의학(10,331천 원), 공학(7,735천 원), 예체능(7,633천 원), 자연과학(7,345천 원), 인문사회(6,083천 원)순이다.
- 평균 등록금 대비 계열별 등록금을 비교하면, 의학 148.6%, 공학 111.2%, 예체능 109.8%, 자연과학 105.6%, 인문사회 87.5% 수준으로 나타났다.

⑤ 사립대학은 등록금 수입의 약 2.3배를 교육비로 투입

- 2025년 사립대학의 총교육비는 22조 9,716억 원이며, 등록금 수입은 9조 9,505억 원으로 교육비 환원율은 230.9%였다. 이는 사립대학이 등록금 수입의 약 2.3배를 교육비로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사립대학 교육비 환원율은 2021년 198.3%에서 2025년 230.9%로 32.6%p 상승하였다.
- 2024년 전체 대학의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평균 등록금의 55.1%에 달했으며, 사립대학은 평균등록금의 52.5%로 반값 등록금은 이미 달성되었다.

⑥ 사립대와 국공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 4년간 2.4배 확대

- 2024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1,738만 6천 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했다. 특히 비수도권 사립대학은 1,506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5.4% 감소하였다.
- 반면, 국·공립대학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2,592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하였다.
-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는 2020년 362만 원에서 2024년 853만 9천 원으로 확대됐다. 격차 규모가 4년 사이 약 2.4배로 더 커진 것이다.

⑦ 소멸위험지역에 대학 61개교(23.3%) 소재… 사립대학이 45개교

- 전국 229개 시군구에 소재한 262개교(본교 190교, 분교 5교, 캠퍼스 67교) 중 소멸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3등급과 4등급 지역에 소재한 대학은 3등급 50개교(19.1%), 4등급 11개교(4.2%) 등 총 61개교(23.3%)이다.
- 설립별로 보면, 소멸위험지역(3·4등급)에 소재한 대학의 비율은 사립대가 22.0%(204개교 중 45개교), 국공립대는 27.6%(58개교 중 16개교)로 나타났다.
- 시도별로 보면, 소멸위험등급인 3, 4등급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소재하는 대학은 전북이 11개 대학 중 7개교(63.0%)가 소재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경북이 21교 중 12교(57.1%), 충북이 15교 중 7교(46.7%), 충남이 24교 중 11교(45.8%), 부산이 18교 중 8교(44.4%) 순으로 나타났다.

Ⅷ QS 세계대학평가 분석(2025-2026)

- 2026 QS 세계대학평가 순위에서 국내 대학 중 서울대가 31위에서 38위로 7단계 하락하였고, Top 100위권 내에는 작년 5개교에서 3개교만 포함됨
 - 국내 대학 중 Top 100위권 대학은 연세대(50위), 고려대(61위)이다.
 - 101~200위권 3개교, 201~400위권 5개교, 401~600위권 6개교, 601~800위권 6개교 포함되었다.
 - 800위권 국내 대학 중, 사립대학이 16개교, 국립대학이 4개교 포함(과학특성화 대학 3개교 제외)되었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선정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의 순위를 보면, 부산대만 473위에 선정되고, 전남대와 충남대는 800위권에 들지 못하였다.
- 2026년 QS 세계대학평가 상위 100위 대학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가별로 분석해 보면, 미국이 26개교로 가장 많았고, 영국 17개교, 호주 9개교, 중국·홍콩·독일 각 5개교, 일본·프랑스 각 4개교 순이었다. 한국은 3개교가 포함되었다.
 -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이 81개교, 사립대학이 19개교였다. 아시아 지역 상위 100위권 대학 22개교 중 국공립대학이 20개교였으며, 사립대학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등 한국 대학 2개교 뿐이다.
- 2026년 QS 세계대학평가 상위 100위 대학의 주요 통계

구 분	평균	최저	최고
• 재학생 수	29,897명	2,463명	110,967명
• 학부생 비율	62.0%	25.0%	91.0%
• 교수 수	3,750명	929명	16,225명
• 교수 1인당 학생 수	8.7명	2.7명	18.0명
• 외국인 학생 수	9,379명	788명	35,398명
• 외국인 학생 비율	32.2%	8.5%	77.2%
• 외국인 유학생 중 학부생 비율	43.0%	10.0%	87.0%
• 외국인 교수 비율	37.0%	6.0%	90.0%

- 외국인 학생 비율은 평균 32.2%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학생 비율이 21~30%인 대학이 27개교로 가장 많았고, 31~40%인 대학이 24개교, 41~50%인 대학이 17개교이다.

- **외국인 교수 비율도 평균 37.0%**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교수 비율이 41% 이상인 대학은 43개교였으며, 이 가운데 61% 이상인 대학도 12개교이다. 이는 세계 상위권 대학의 국제화가 외국인 학생 유치뿐 아니라 우수한 외국인 교수 확보와 연구역량의 국제화가 함께 이뤄지는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8.7명**이었다. 자료가 확인된 99개교 중 72개교가 교수 1인당 학생 수 10명 이하였고, 이 가운데 14개교는 5명 이하로 나타남. QS 상위권 대학이 국제화와 함께 충분한 교수 인력과 양질의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대학 재학생 수는 평균 2만 9,897명, 교수 수는 평균 3,75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유학생 중 학부생 비율은 **평균 43.0%**로, 세계 상위권 대학의 유학생 유치와 교수 확보 수준이 학부와 대학원 과정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사총협 황인성 사무총장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9명을 사립대학이 교육하고 있지만,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유학생 등록금과 장학금 및 교육 인프라 지원 격차가 크게 존재하여, 공정한 유학생 유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 또한, “세계 상위권 대학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외국인 학생 수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교수진, 낮은 교수 1인당 학생 수, 국제적인 교육·연구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며 “유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와 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기숙사, 한국어교육, 취업·정주 지원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해당 부처와 지자체, 대학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고 밝혔다.
- 아울러 “사립대학이 등록금 수입의 2.3배가 넘는 교육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국공립대학과의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며 “학생이 재학하는 대학의 설립 유형이나 소재 지역에 따라 교육 기회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붙임: 1. 주요 대학교육 통계 요약 자료 1부.

2. 「2024-2025 대학교육 통계 자료집」 1부. 끝.

[별첨]

○ 설립별·지역별 대학 개황(2025년)

(단위: 개교, 명, %)

시도			설립별	학교수	재적학생수	입학정원	입학자	졸업자	전임교원수	직원수
전국			전체 (%)	195 (100.0)	1,853,548 (100.0)	313,886 (100.0)	351,055 (100.0)	313,839 (100.0)	64,529 (100.0)	56,402 (100.0)
			사립 (%)	156 (80.0)	1,425,543 (76.9)	238,579 (76.0)	269,824 (76.9)	242,426 (77.2)	46,990 (72.8)	36,728 (65.1)
			국·공립 (%)	39 (20.0)	428,005 (23.1)	75,307 (24.0)	81,231 (23.1)	71,413 (22.8)	17,539 (27.2)	19,674 (34.9)
수도권	서울	전체	39	504,506	75,079	90,620	82,152	19,190	18,035	
		사립	34	452,778	66,739	81,414	74,022	16,450	13,038	
		국·공립	5	51,728	8,340	9,206	8,130	2,740	4,997	
	경기	전체	30	236,134	38,174	43,541	38,906	6,646	5,874	
		사립	29	227,676	36,903	42,164	37,197	6,390	5,547	
		국·공립	1	8,458	1,271	1,377	1,709	256	327	
	인천	전체	4	42,781	6,952	7,800	6,901	1,517	1,322	
		사립	2	26,122	3,910	4,477	4,114	897	630	
		국·공립	2	16,659	3,042	3,323	2,787	620	692	
	계	전체	73 (37.4)	783,421	120,205	141,961	127,959	27,353	25,231	
		사립	65 (33.3)	706,576	107,552	128,055	115,333	23,737	19,215	
		국·공립	8 (4.1)	76,845	12,653	13,906	12,626	3,616	6,016	
비수도권	광역권	계	전체	37	410,162	72,601	78,633	70,877	14,160	10,237
			사립	27	266,718	47,750	51,782	46,736	8,426	5,087
			국·공립	10	143,444	24,851	26,851	24,141	5,734	5,150
	비광역권	계	전체	85	659,965	121,080	130,461	115,003	23,016	20,934
			사립	64	452,249	83,277	89,987	80,357	14,827	12,426
			국·공립	21	207,716	37,803	40,474	34,646	8,189	8,508
	계	전체	122 (62.6)	1,070,127	193,681	209,094	185,880	37,176	31,171	
		사립	91 (46.7)	718,967	131,027	141,769	127,093	23,253	17,513	
		국·공립	31 (15.9)	351,160	62,654	67,325	58,787	13,923	13,658	

- ※ 학교수: 사립대학 151개, 분교 5개교. 국공립대학 39개교 기준
 (캠퍼스는 학교수에는 제외, 그 외 항목에서는 캠퍼스 소속 지역 내 값으로 계산함)
 ※ 재적학생수: 재학생, 휴학생,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포함
 ※ 입학자수: 정원 내외 입학자수 합계
 ※ 졸업자수: 2024.8월 2025.2월 졸업자 수 합계

1) 재학생 수 및 변동 추이

- 4년제 대학 재학생 수는 2025년 1,402,438명으로 2021년 대비 31,254명(2.2%) 감소하여,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임
- 설립별로는 2025년 사립대 1,079,995명(77.0%), 국·공립대 322,443명(23.0%)으로, 2021년 대비, 사립대 25,667명(2.3%) 감소, 국공립대 5,587명(1.7%) 감소함
- 지역별로는 사립대 수도권은 533,671명(38.0%), 비수도권은 546,324명(39.0%), 국공립대 수도권은 59,264명(4.2%), 비수도권은 263,179명(18.8%)으로, 2021년 대비, 사립대와 국공립대 모두 수도권은 증가한 데 비해 비수도권은 감소 폭이 큼

〈표 1〉 대학 설립별-지역별 재학생 수 변동 추이 (2021-2025)

(단위: 명,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학생 수 (구성비)	재학생 수 (구성비)	증감(%)	재학생 수 (구성비)	증감(%)	재학생 수 (구성비)	증감(%)	재학생 수 (구성비)	증감(%)
전 체		1,433,692 (100.0)	1,391,311 (100.0)	△42,381 (△3.0)	1,398,652 (100.0)	7,341 (0.5)	1,379,389 (100.0)	△19,263 (△1.4)	1,402,438 (100.0)	23,049 (1.7)
사 립	소계	1,105,662 (77.1)	1,072,800 (77.1)	△32,862 (△3.0)	1,077,200 (77.0)	4,400 (0.4)	1,059,042 (76.8)	△18,158 (△1.7)	1,079,995 (77.0)	20,953 (2.0)
	수도권	521,675 (36.4)	509,307 (36.6)	△12,368 (△2.4)	523,557 (37.4)	14,250 (2.8)	522,047 (37.8)	△1,510 (△0.3)	533,671 (38.0)	11,624 (2.2)
	비수도권	583,987 (40.7)	563,493 (40.5)	△20,494 (△3.5)	553,643 (39.6)	△9,850 (△1.7)	536,995 (38.9)	△16,648 (△3.0)	546,324 (39.0)	9,329 (1.7)
국 공 립	소계	328,030 (22.9)	318,511 (22.9)	△9,519 (△2.9)	321,452 (23.0)	2,941 (0.9)	320,347 (23.2)	△1,105 (△0.3)	322,443 (23.0)	2,096 (0.7)
	수도권	58,469 (4.1)	57,363 (4.1)	△1,106 (△1.9)	58,315 (4.2)	952 (1.7)	58,112 (4.2)	203 (0.3)	59,264 (4.2)	1,152 (2.0)
	비수도권	269,561 (18.8)	261,148 (18.8)	△8,413 (△3.1)	263,137 (18.8)	1,989 (0.8)	262,235 (19.0)	△902 (△0.3)	263,179 (18.8)	944 (0.4)

※ 대상교: 2021년(223교), 2022년(223교), 2023년(218교), 2024년(217교), 2025년(218교)

재학생 수: 재학생 정원 내·외 합계

※ 출처: 대학알리미_4-마. 재적학생 현황(2025년 자료: 2025. 12. 30. 기준)

2) 출신 지역별 현황

- 2025년 국내 외국인 학생(대학원 포함)은 총 210,075명이며, 출신 지역별 현황을 보면, 아시아가 91.2%(191,51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유럽 5.1%, 북미 1.8%, 아프리카 1.2%, 남미 0.5%, 오세아니아 0.2% 순으로 아시아 출신 외국인 학생들이 압도적임

- 과정별로는 학위과정이 전체 외국인 학생의 71.1%(149,456명)이며, 이중 학사과정이 44.7%(93,970명), 대학원 과정이 26.4%(55,486명)이고, 어학연수 21.7% (45,546명), 기타 연수 7.2%(15,073명) 순으로 나타남

〈표 2〉 국내 외국인 학생 출신 지역별 현황 (2025)

(단위: 명, %)

구 분	총 계	학위과정			어학연수	기타 연수
		대학	대학원 (석·박사)	소계		
합 계	210,075 (100.0)	93,970 (44.7)	55,486 (26.4)	149,456 (71.1)	45,546 (21.7)	15,073 (7.2)
아시아	191,510 (91.2)	90,451 (47.2)	52,097 (27.2)	142,548 (74.4)	41,853 (21.9)	7,109 (3.7)
유럽	10,788 (5.1)	1,943 (18)	1,087 (10.1)	3,030 (28.1)	2,253 (20.9)	5,505 (51.0)
북미	3,874 (1.8)	603 (15.6)	683 (17.6)	1,286 (33.2)	647 (16.7)	1,941 (50.1)
아프리카	2,506 (1.2)	632 (25.2)	1,301 (51.9)	1,933 (77.1)	398 (15.9)	175 (7.0)
남미	1,071 (0.5)	270 (25.2)	254 (23.7)	524 (48.9)	323 (30.2)	224 (20.9)
오세아니아	326 (0.2)	71 (21.8)	64 (19.6)	135 (41.4)	72 (22.1)	119 (36.5)

※ 주 1) 대상교: 192개교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2) 자료 기준: 매년 4월 1일

※ 출처: 교육부, 「2025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한국인 유학생 현황」(2025.12.31. 기준)

3) 주요 국가별 현황

- 2025년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이 35.5%(74,62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베트남 24.6%(51,764명), 몽골 6.0%(12,511명), 우즈베키스탄 5.4%(11,359명), 일본 2.3%(4,906명), 미국 1.4%(2,897명) 순이며, 2022년 대비 전체적으로 43.6% 증가함
- 2022년 대비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가별로 증가 추이를 보면, 몽골이 102.1%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베트남 82.4%, 우즈베키스탄 6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6.2% 감소하였음

〈표 3〉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출신 주요국가 (2022-2025)

(단위: 명,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2년 대비 2025년 증가율(%)
지 역	학생수(%)	학생수(%)	학생수(%)	학생수(%)	
합 계	146,241 (100.0)	157,942 (100.0)	177,378 (100.0)	210,075 (100.0)	(43.6)
중국	65,310 (44.7)	66,065 (41.8)	70,167 (39.6)	74,620 (35.5)	(14.3)
베트남	28,372 (19.4)	32,111 (20.3)	40,117 (22.6)	51,764 (24.6)	(82.4)
몽골	6,192 (4.2)	8,275 (5.2)	9,365 (5.3)	12,511 (6.0)	(102.1)
우즈베키스탄	7,053 (4.8)	8,654 (5.5)	9,623 (5.4)	11,359 (5.4)	(61.1)
일본	5,231 (3.6)	5,357 (3.4)	4,763 (2.7)	4,906 (2.3)	(△6.2)
미국	2,941 (2.0)	2,792 (1.8)	2,720 (1.5)	2,897 (1.4)	(△1.5)
기타	31,142 (21.3)	34,688 (22.0)	40,623 (22.9)	52,019 (24.8)	(67.0)

※ 주 1) 대상교: 2022년(183교), 2023년(182교), 2024년(183교), 2025년(192교),/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2) 자료 기준: 매년 4월 1일

※ 출처: 교육부 「2025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한국인 유학생 현황」(2025.12.31.)

4) 사립대학 총 재정규모

-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2025년 총 재정규모는 59조 6,5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함. 이중 학교회계가 74.8%인 44조 6,395억 원이나 부속병원회계가 4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비회계는 34.7%임. 산학협력단회계는 14.9%인 8조 8,599억 원, 법인회계는 10.3%인 6조 1,576억 원임
- 사립대학의 총 재정규모 추이를 보면, 총 재정규모는 2021년 48조 9,358억 원에서 2025년 59조 6,570억 원으로 21.9% 증가하였으나, 학교회계의 비율은 감소하고, 산학협력단회계 비율은 증가함
-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총 재정규모 구성비는 감소(2021년 37.0%→2025년 34.7%)하고 있으며, 부속병원회계는 1.0%p 증가함
- 2025년 사립대학의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 결산 수입은 총 20조 6,955억 원이며, 이중 등록금 수입이 9조 5,510억 원(48.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이 4조 2,220억 원 (20.4%), 전입금 1조 5,580억 원(7.5%), 교육부대수입 1조 2,060억 원(5.8%) 순으로 나타남
- 교비회계 추이를 보면, 등록금 수입 비율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대비 2025년에 6.9%p 감소한 반면에, 국고보조금 수입 비율은 3.1%p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4〉 사립대학 총 재정규모 (2021-2025)

(단위: 백만 원, %)

구 분		총 재정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증감(%)
전 체		48,935,880 (100.0)	52,656,273 (100.0)	55,647,873 (100.0)	58,298,209 (100.0)	59,657,067 (100.0)	1,358,858 (2.3)
법인 회계	법인일반회계	1,966,308 (4.0)	2,007,255 (3.8)	2,064,231 (3.7)	2,297,193 (3.9)	2,271,099 (3.8)	△26,904 (△1.1)
	법인수익사업 회계	3,084,830 (6.3)	3,473,722 (6.6)	3,496,208 (6.3)	3,701,585 (6.3)	3,886,521 (6.5)	184,936 (5.0)
	소 계	5,051,138 (10.3)	5,480,977 (10.4)	5,560,439 (10.0)	5,998,778 (10.3)	6,157,620 (10.3)	158,842 (2.6)
학교 회계	교비회계	18,106,239 (37.0)	18,373,011 (34.9)	18,981,448 (34.1)	19,690,667 (33.8)	20,695,554 (34.7)	1,004,887 (5.1)
	부속병원회계	19,117,839 (39.1)	21,191,729 (40.2)	22,766,095 (40.9)	23,858,036 (40.9)	23,943,961 (40.1)	85,925 (0.4)
	소 계	37,224,078 (76.1)	39,564,740 (75.1)	41,747,543 (75.0)	43,548,703 (74.7)	44,639,515 (74.8)	1,090,812 (2.5)
산학협력단회계		6,660,664 (13.6)	7,610,556 (14.5)	8,339,891 (15.0)	8,750,728 (15.0)	8,859,932 (14.9)	109,204 (1.2)

※ 주: 결산자료를 제출한 4년제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합계 자료임

※ 출처: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각 연도). 한국사학진흥재단

〈표 5〉 사립대학 교비회계 결산(수입) (2021-2025)

(단위: 십억 원, %)

구분	수 입									
	운영수입							자산 및 부채 수입	전기 이월 자금	총계
	등록금 수입	수강료 수입	전입금 수입	기부금 수입	국고 보조금 수입	교육부대 수입	교육외 수입			
2021	9,957	329	1,412	358	3,128	791	279	1,097	760	18,115
구성비	(55.0)	(1.8)	(7.8)	(2.0)	(17.3)	(4.4)	(1.5)	(6.1)	(4.2)	(100.0)
2022	9,846	353	1,412	393	3,178	849	286	1,249	812	18,382
구성비	(53.6)	(1.9)	(7.7)	(2.1)	(17.3)	(4.6)	(1.6)	(6.8)	(4.4)	(100.0)
2023	9,749	404	1,487	481	3,490	1,050	361	1,062	871	18,954
구성비	(51.4)	(2.1)	(7.8)	(2.5)	(18.4)	(5.5)	(1.9)	(5.6)	(4.6)	(100.0)
2024	9,884	459	1,531	499	3,875	1,149	546	824	969	19,736
구성비	(50.1)	(2.3)	(7.8)	(2.5)	(19.6)	(5.8)	(2.8)	(4.2)	(4.9)	(100.0)
2025	9,955	512	1,558	522	4,222	1,206	574	1,070	1,080	20,696
구성비	(48.1)	(2.5)	(7.5)	(2.5)	(20.4)	(5.8)	(2.8)	(5.2)	(5.2)	(100.0)

※ 주: 결산자료를 제출한 4년제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자료임

※ 출처: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각 연도). 한국사학진흥재단

5)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변동 추이

-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사립대와 국공립대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4년 사립대는 소폭 감소함
- 설립별로는 사립대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2024년 17,386천 원으로, 2020년(15,234천 원) 대비 2,152천 원(14.1%) 증가하고, 국공립대는 2024년 25,925천 원으로, 2020년 18,854천 원 대비 7,071천 원(37.5%) 증가함
- 지역별로는 사립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4,163천 원 많았으며, 국공립대도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1,973천 원 많아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학생 1인당 교육비 더 크게 나타남
- 사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국공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는 2020년 3,620천 원에서 2024년에는 8,539천 원으로 2.4배 증가함

〈표 8〉 대학 설립별-지역별 학생 1인당 교육비 변동 추이 (2020-2024)

(단위: 천 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학생 1인당 교육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감(%)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감(%)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감(%)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감(%)
사립	평균	15,234	15,859	625 (4.1)	17,093	1,234 (7.8)	17,759	667 (3.9)	17,386	△374 (△2.1)
	수도권	17,025	17,482	457 (2.7)	18,989	1,507 (8.6)	19,370	381 (2.0)	19,228	△142 (△0.7)
	비수도권	13,389	14,121	732 (5.5)	15,023	902 (6.4)	15,932	909 (6.1)	15,065	△867 (△5.4)
국공립	평균	18,854	20,581	1,727 (9.2)	22,807	2,226 (10.8)	24,926	2,119 (9.3)	25,925	999 (4.0)
	수도권	26,482	28,724	2,242 (8.5)	32,040	3,316 (11.5)	34,500	2,459 (7.7)	35,473	973 (2.8)
	비수도권	17,005	18,591	1,586 (9.3)	20,506	1,915 (10.3)	22,517	2,011 (9.8)	23,500	983 (4.4)

※ 주 1) 대상교: (사립): 2020년(152교), 2021년(151교), 2022년(151교), 2023년(151교), 2024년(156교)

2) 대상교(국·공립): 2020년(39교), 2021년(39교), 2022년(39교), 2023년(39교), 2024년(39교)

3) 교육비 0원인 대학 제외

4) 학생 1인당 교육비 = 총교육비 / 재학생 수

※ 출처: 대학알리미 9-나-1. 학생 1인당 교육비(2025. 9. 26. 기준)

6) 평균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

■ 평균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을 보면, 설립별로는 사립대 교육비 비율이 2024년 236.9%, 국공립대 비율은 657.4%로 국공립대가 약 2.8배 더 높음

● 지역별로는 사립대 수도권 교육비 비율이 249.0%, 비수도권 214.1%로 수도권이 34.9%p 더 높으며, 국공립대 수도권은 864.2%, 비수도권은 601.5%로 수도권이 262.7%p 더 높게 나타남

〈표 9〉 평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추이 (2020-2024)

(단위: 만 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등록금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등록금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등록금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등록금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등록금
사립	평균	1,523	722	1,586	720	1,709	728	1,776	733	1,739	734
	수도권	1,703	757	1,748	759	1,899	761	1,937	767	1,923	772
	비수도권	1,339	695	1,412	690	1,502	702	1,593	705	1,507	704
국공립	평균	1,885	391	2,058	391	2,281	391	2,493	394	2,593	394
	수도권	2,648	408	2,872	408	3,204	408	3,450	410	3,547	411
	비수도권	1,701	387	1,859	387	2,051	388	2,252	391	2,350	391

※ 대상교: 2020년(191교), 2021년(190교), 2022년(190교), 2023년(190교), 2024년(190교)

〈표 10〉 평균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 (2020-2024)

(단위: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	평균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	평균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	평균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	평균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
사립	평균	210.9	220.3	234.8	242.3	236.9
	수도권	225.0	230.3	249.6	252.5	249.0
	비수도권	192.7	204.6	214.1	226.0	214.1
국공립	평균	482.1	526.3	582.7	632.7	657.4
	수도권	649.0	703.9	784.4	841.5	864.2
	비수도권	439.5	480.4	529.1	576.0	601.5

※ 대상교: 2020년(191교), 2021년(190교), 2022년(190교), 2023년(190교), 2024년(190교)

※ 평균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교육비 / 평균 등록금 × 100

7) 사립대학 교육비 환원율

- 2025년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은 9조 9,505억 원이며, 총 교육비 규모는 22조 9,716억 원으로 교육비 환원율은 230.9%로, 이는 대학이 등록금 수입의 2.3배 이상을 교육비로 재투자하고 있음을 의미함

- 2021년 198.3%에서 2025년 230.9%로 5년간 32.6%p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함

〈표 11〉 사립대학 교육비 환원율 (2021-2025)

(단위: 백만 원, %)

구분	교비회계(A)	산학협력단회계(B)	총 교육비(C=A+B)	등록금 수입(D)	교육비 환원율(C/D)
2021	15,537,352	4,209,959	19,747,311	9,957,681	198.3%
2022	15,591,668	4,818,179	20,409,847	9,846,933	207.3%
2023	16,135,578	5,376,953	21,512,531	9,748,512	220.7%
2024	16,705,383	5,778,302	22,483,685	9,883,759	227.5%
2025	17,305,986	5,665,682	22,971,668	9,950,511	230.9%

※ 주: 결산자료를 제출한 4년제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자료임

※ 출처: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각 연도), 한국사학진흥재단

8) 소멸위험 지역내 대학 현황

- 개정된 신분류체계(2025년 6월 기준)에 따른 소멸위험지역은 229개 시군구 중 62곳(4등급 '위험' 55곳, 5등급 '심각' 7곳)이며, 3등급 '경계'는 55곳으로 나타남
- 전국에 소재한 262개교(본교 190교, 분교 5교, 캠퍼스 67교) 중 소멸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3등급과 4등급 지역의 대학은 3등급 50교(19.1%), 4등급 11교(4.2%) 등 총 61교(23.3%)임
- 설립별로 보면, 소멸위험지역(3·4등급)에 소재한 대학의 비율은 사립대가 22.0%(204개교 중 45개교), 국공립대는 27.6%(58개교 중 16개교)로 나타남
- 시도별로 보면, 소멸위험등급인 3, 4등급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소재하는 대학은 전북이 11개 대학 중 7개교(63.0%)가 소재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경북이 21교 중 12교(57.1%), 충북이 15교 중 7교(46.7%), 충남이 24교 중 11교(45.8%), 부산이 18교 중 8교(44.4%) 순으로 나타남

〈표 12〉 소멸위험지역 내 대학 현황 (2024)

(단위: 개, %)

등 급	시도		시군구		총 대학수					
					합 계		사립		국공립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0(안전) (100 이상)	1	5.9	5	2.2	15	5.7	11	5.4	4	6.9
1(보통) (60-100 미만)	5	29.4	65	28.4	119	45.4	99	48.5	20	34.5
2(관리) (40-60 미만)	6	35.3	42	18.3	67	37.0	49	24.0	18	31.0
3(경계) (20-40 미만)	5	29.4	55	24.0	50	19.1	37	18.1	13	22.4
4(위험) (10-20 미만)	0	0.0	55	24.0	11	4.2	8	3.9	3	5.2
5(심각) (10 미만)	0	0.0	7	3.1	0	0.0	0	0.0	0	0.0
전 체	17	100.0	229	100.0	262	100.0	204	100.0	58	100.0
소멸위험지역 (3,4 등급) 계	5	29.4	110	48.0	61	23.3	45	22.1	16	27.6

※ 대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의 본교(190교), 분교(5교), 캠퍼스(67교) 총 262개교, 소재지별 구성

※ 출처: 이상호(2025), 지방소멸 2025: 신분류체계와 유형별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9) QS 세계 대학순위 상위 800위(한국)

- QS 세계 대학 평가 순위에서 국내 대학 중 서울대가 31위에서 38위로 7단계 하락하였고, Top 100위권 내에는 작년 5개교에서 3개교만 포함됨
- 국내 대학 중 Top 100위권 대학은 연세대(50위), 고려대(61위)임
- 101~200위권 3개교, 201~400위권 5개교, 401~600위권 6개교, 601~800위권 6개교 포함
- 800위권 국내 대학 중, 사립대학이 16개교, 국립대학이 4개교 포함됨(과학특성화 대학 3개교 제외)
-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선정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의 순위를 보면, 부산대만 473위에 선정되고, 전남대와 충남대는 800위권에 들지도 못함

〈표 13〉 QS 세계 대학순위 상위 800위(한국) (2025-2026)

'26년	대학명	'25년	변동
=38	서울대학교	31	△7
50	연세대학교	56	6
61	고려대학교	67	6
102	포항공대(POSTEC)	98	△4
=126	성균관대학교	=123	△3
159	한양대학교	162	3
=310	울산과학기술원 (UNIST)	280	△30
=331	경희대학교	=328	△3
370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326	△44
=385	광주과학기술원 (GIST)	=359	△26
=392	세종대학교	=396	4
=473	부산대학교	=524	51
479	중앙대학교	=489	10
=504	이화여자대학교	=511	7
=519	경북대학교	=516	△3
=558	서강대학교	=576	18
=563	아주대학교	631-640	68-77
=618	동국대학교	701-710	83-92
=643	인하대학교	631-640	△3-△12
=654	건국대학교	721-730	67-76
=680	한국외국어대학교(HUFS)	651-660	△20-△29
701-710	전북대학교	681-690	11-29
741-750	가톨릭대학교	801-850	51-109

※ 출처: QS(각 연도). World University Rankings